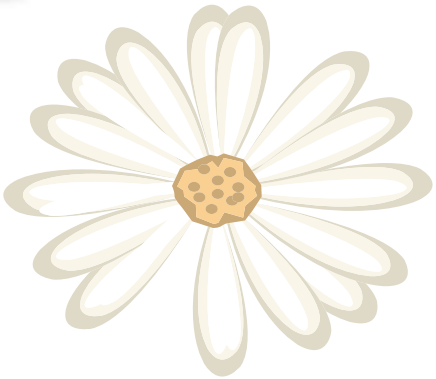
Chapter. 12
나눔의 삶

예수님을 나누는 것이 전도이며, 선교입니다.



'나눔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누구나, 반드시 행해야할 사명이자 권리이며, 본인과 이웃들을 향한 축복의 모습입니다. 나누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임합니다. '믿는 자'라 하며 나누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웃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웃에 대한 실질적이고 온전한 선함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하면서, 절대로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그걸로 이웃사랑을 하겠다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나눔'입니다.

별로 나눌 것이 없다고요? 이웃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도 내 귀를 나누어 주는 나눔이고, 이웃에게 내 마음을 쓰는 것도 나눔이며, 슬픈 사람이랑 같이 울 수 있는 것도 나눔이고, 이웃의 기쁜 일을 같이 기뻐해 주는 것도 나눔입니다. '나눔의 삶'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모든 율법(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의 요약이라면, '나눔의 삶'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전부 다 나열한 후에,

그 말씀의 핵심을 설명할 수 있는 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나눔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눈다'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나누는 것에 저주의 모습이나 악의 형상이 섞여 있다면 '나누는 것'보다 더 악한 일은 없겠지요. 평상시 욕을 많이 하는 어떤 사람은 그 이웃에게 그의 욕하는 소리를 '나누는' 악을 행하는 것이겠지요. 매일 근심과 걱정에 쌓인 누군가가 그 주위 사람에게 그의 근심과 걱정을 항상 덜어 준다면 그 또한 저주의 나눔이겠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나누어야 하는 것은 반드시 아름다운 나눔의 근본이신 하나님으로만 비롯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선한 나눔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선한 나눔의 삶'의 본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66절**까지 본인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며 본인의 삶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이유와 죽으셔야만 했던 동기와 또 영원히 사셔야할 할 목적이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님께서 살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십니까? 그렇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선포해 보십시오. '내가 바로 예수님께서 살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입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이웃에게도 이 축복을 선포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삶이 시작됩니다.

본인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산다고 외치시는 그의 외마디 소리가 십자가 위에서 오늘의 우리 귀까지 메아리 치고.... **'다 이루었다~!'** 라는 부르짖음으로 우리의 영혼에 선명하게 새겨지기까지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나눔의 삶' 입니다.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정한, 우리를 위한 '나눔의 삶' ....

(요한복음 6장 31절~45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

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 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앞에 오고, 나를 만나게 되고, 나를 경험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나의 계획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당신이 이 자리에서 이 글을 접하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당신은 생명의 떡을 먹는 자로써, 날마다 생명의 떡을 취할 자로써,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나누어 줄 자라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이 저보다 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분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취할 분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46절~66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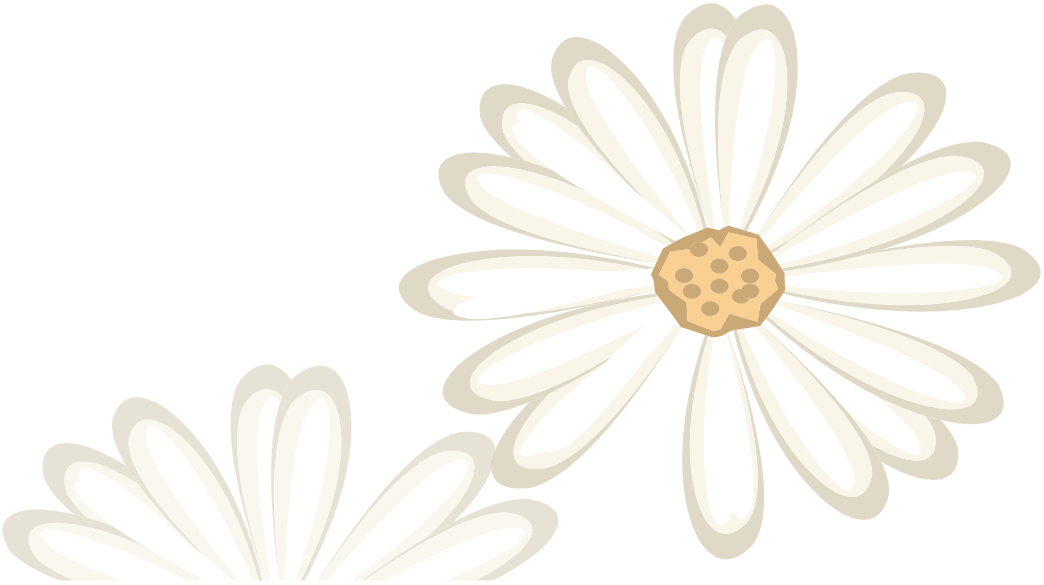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 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으라', 또 '내 피를 마시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사셨던 이유가 바로 당신이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도 당신 자신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살으셨던 이유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되는 삶이 바로 그의 삶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살고, 그의 뜻대로 죽고자 하는 자는 영생을 살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사는 자는 이 세상에서 예수의 능력을 누릴 것이요, 죽기까지 이 세상에서 벌써 본인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고 나가는 자는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과연 그의 살을 먹고 마시는지 분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어, 그의 살으셨던 이유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되어 이젠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만이 진정한 '나눔의 삶' 입니다. 전도와 선교도 마찬가지 입니다.



예수님을 나누는 것이 바로 전도이며, 선교입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전하는 것은 전도도 아니고 선교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같이 나누는 것이 바로 전도이며 선교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나누는 것이 믿음의 삶이며, 당신이 거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은혜, 용서를 나누는 것이 진정한 나눔입니다. 그래서 많이 용서받은 자는 많이 용서한다고 하셨고, 마찬가지로 은혜를 많이 받은 자는 많은 은혜를 끼치며, 많이 사랑을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받고 싶어 하겠지요. 축복을 받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이지 하나님을 속이려는 이야기지 진정으로 믿지 않는 자입니다.

진정으로 축복을 누리시려면 예수님과 닮은 모습이 있어야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누기 시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나누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눈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며, 용서하는 것이며,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거저 받았다고 하는 축복을 나누기 시작하는 삶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는 사람에게 축복이지, 그게 왜 당신에게 축복이 되냐고요?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행 20:35**) 하셨습니다. 사단이 오랫동안 믿는 자들을 속여 왔던 방법 중 하나가 당신이 축복을 먼저 받은 다음에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이것이니, 당신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축복을 온전히 다 받았으며, 자신의 전부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나누려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사 하늘의 거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축복을 구하지 말고 믿음으로 현재 지닌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나누십시오.

기억나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나누기 시작할 때 일어났습니다. 진정으로 나눔의 축복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될지라도 믿음으로 나누기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나누어 주라' 하셨습니다(**마 14:17~21, 막 6:34~44, 요 6:5~14, 누 9:11~17, 마 15:34~38, 막 8:1~10**).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병이어를 받아들었을 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그대로인 상태였습니다. 갑자기 확 늘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본인들 눈에 보기에 오병이어가 늘어나지 않아서 나누어 주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아무리 축사를 하셨어도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라 하시니 믿기 힘들지만 그가 하라시는 대로 나누어

주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가 그러라고 하시면 이해가 안 돼도 하기 시작하시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잔머리로는 아무 축복을 못 누립니다.

어떨 때는, 도저히 용서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용서하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용서하기 싫은데, 내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 용서하기 싫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하시니, 용서할게요'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실질적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하시고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셨지 않습니까?(롬 9:10)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의 것을 나누는 자가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누실 것이 없다고요? 마음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나누시고, 칭찬을 나누시고, 한 번 더 고맙다고 하시고, 한 번 더 등 두드려 주시고…….

여러분 박수 쳐주는 것도 나눔 것을 아십니까? 제가 어릴 때, 어느 칙칙한 날, 뉴욕에서 퇴근길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눈보라인지, 비였는지, 하여튼 축축하고 추운 밤이었어요. 기차가 형광등을 제때에 안 갈아서 몇 개만 들어오니까 껌껌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힘이 빠져있는데, 고등학교 여학생들 같았어요. 둘이 들어와서 구석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그중에 한 여자애가 '오늘 얘 생일이래요(Today's her birthday.)' 라고 크지도 않은 소리로 말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퇴근 지하철 속에서 힘들어 쳐져있던 사람들 사이에 갑자기 활기가 일어나면서 'Happy birthday to you~!'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축축하고 꾸질 꾸질 하고 피곤한 사람들이 같이 노래를 하는데, 그 전차가 확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아무리 절망 가운데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눌 것이 없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숨 한 오라기만 남았더라도, 여러분의 남은 그 숨 한 오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창조하신 축복의 창문을 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아서 곰팡이가 끼고 이끼가 끼었을지 몰라도, 이제 믿음으로 그 창을 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창을 억지로 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직접 자원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창조하신 그 창문을 열기를 바라십니다. 이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원하여' 하나님을 찾는 심정은 바로 그 선함이 여러분 안에서 자원하여 시작되는 시점에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 안에, 중심 안에 떨어져서 제일 처음 시작되는 일이 양심이 살아나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양심은 '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선한 행동 시작하셔야합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막는 것이 이것입니다. 행동하지 못하게 합니다. 별 이상한 생각이 다 들게 합니다. 주로 감정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은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귀에 대고 '정말?', '에이, 설마.....', 'Really?'

그릇된 감정에서 비롯된 질문들 속에 파묻혀 있는 늘어진 얇은 귀를 버리시고, 이제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행동에 옮기십시오. 내일이 안 올 것처럼 행동에 옮기십시오. 오늘이 이 땅에서 마지막인 것처럼 결정하고 행동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일은 오직 성령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그 어느 누구도, 전도한다며, 선교한다며 예수그리스도가 아닌 단체나, 어느 특정한 부류나, 사상이나, 사람을 전하려 한다면 그는 바로 적 그리스도의 영에게 노출된 위험한 사람인 것을 알고 긍휼

히 여겨, 도리어 그를 전도 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신 말씀은 농담도 거짓말도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드디어 나누어줄 수 있는 권능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을 나누시길 기도합니다. 그럴 때, 예수그리스도의 영으로 진정한 영의 양식을 나누며,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으로 진정한 나눔의 삶을 살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들을 통해 자유함을 얻고 치유함을 얻은 모든 것들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 10:8)에 순종하여 나누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눈다는 것은 그의 가르침을, 삶의 방법을 통해 스스로 경험하고 또 이웃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떡과 잔을 나눔"을 행하려 하면, 감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중에 하나가 스스로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점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나눈 이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거짓믿음이겠지요? 그러나 '나눔' 이후 하나님의 약속이 일어난다면 살아있는 믿음이요, 권능을 나누어 주는 자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자요, 자유함 받았으니, 이제는 자유케 하는 자라고 믿습니다.

의의나무 시리즈 중 여태까지 경험했던 일들을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경험하시려면 믿음의 양심을 따라 한 번도 안 해보신 일을 도전하시고 한 번도 나누어 보지 않았던, 한 번도 관심을 갖지 않으셨던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거룩한 전쟁을 치루는 자처럼 쳐들어가십시오. 예수님을 나누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누실 때, 신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떵떵거리고 사십시오. 천국이 내 것인 양, 퍼주고, 퍼주고, 퍼줘도 더욱더 풍성해지기만 하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속지 않으셔야합니다. 나누기 시작하셔야합니다. 그러나 나눌 때, 본인의 이름으로 나누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누셔야합니다. 본인이 공급자가 아닌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유통자로서의 책임을 분명히 하십시오. 오직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마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하시는 마음으로 진정한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씩 떼십시오.

성령세례를 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성령을 구하게 할 때 일어났던 사건들과 간증들을 나누십시오. 종교적인 표현을 하길 애쓰지 마시고, 평범한 단어로 나누려 노력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

십니다.

이쯤 되어, 의의나무 시리즈 중 '나눔의 삶' 의 진도 정도 나오셨으면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매일 배우는데 만 열심이 있고, 행함이 없어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시는지 제발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매일 배워도 실제로 예수님을 나누지 않으면 아무 축복이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누가 '믿는다는 자가 전도하면서 예수님을 나누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하지 예수님을 나누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할 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하신 것은 선한 일을 하는 의도가 나 때문인가, 하나님 때문인가 정확히 분별하고 훈련시키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복을 주시려고 복 받는 비결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때문에 선한 일을 하여,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도록 힌트를 주시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훈련 속에 서로 아름답게 경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움입니다.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딱 한번 삽니다.

'다음에.....', '난 앞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하지 마십시오. 하루를 천년같이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루를 천년과 같이도 하십니다. 남들이 천년을 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단 하루에 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간증해왔던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진작 부터 했으면...', '젊었을 때부터 믿었으며...' 속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에게 다 거십시오. '올인'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이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안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직 지구상에서 한 번도 누려보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한 결정을 하십시오.

혼자서 고분 분투하시어 답답함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근처의 잘 믿는 열매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열매를 확인하시는 지혜가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열매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나눈 적이 언제인가 확인하십시오. 실제로 이웃 사랑한 적이 언제인가? 한숨이 나오시면 오늘 이웃 사랑을 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이웃 사랑을 넓혀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눔의 범위를 넓히십시오

'나눔의 삶' 을 시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직접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길 기뻐하십니다. 나눔의 삶을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직접 가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시키고, 또 훈련시켜서 그의 약속을 실제로 경험시키기 위하여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누기 위해서는...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하나님의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지닌 모든 것이 진정으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실제로, 제대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질문에 '예' 라고 대답하실 수 있다면 이제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증명해주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먼저 성령을 구한 자로서, 이제는 더욱 더 하나님의 의도, 마음, 생각으로 성령 충만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축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나눌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부터 훈련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움직

임이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며, 동시에 범위를 넓혀 가게 하십니다. 나눔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강권적으로 명령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나눔의 범위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사, 하나님의 것을 나누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러나 유의하셔야 할 것은, 이것이 지리학적인 것 뿐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리학적으로 따진다면, 우리의 지구 반대편이 바로 땅 끝이겠지요. 지구는 동그라니까. 그러나 영적인 땅 끝은 어쩌면 내 아내이거나, 내 남편일 수도 있으며, 내 부모, 혹은 내 자식, 누구든지 본인 스스로가 제일 관심 밖으로 생각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장 무시하거나, 제일 미워하거나, 불편해하는 바로 그 자나, 그 사람들이 바로 나에겐 영적인 땅끝입니다. 온전히, 결국 그들에게까지 하나님을 매일 매 순간 만나는 증인의 삶, 축복의 삶, 나누는 살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당신과 같이 나타내시길 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지도를 지금 그려 보십시오...

나에겐 무엇이, 어느 곳이 예루살렘이며, 온 유대이며, 사마리아와 땅 끝인지.....